



정리정돈의 힘

— 효율적인 낙농의 시작은 일하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

모든 작업의 시작, 정리정돈의 힘

여러분은 정리를 잘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대강하거나, 미루거나,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지러운 상태에서 만족하며 산다. 그러나 마음 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내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드는 삶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려주는 정리정돈법을 실천해야 할 때다.



윤 선 현
베리굿정리컨설팅 대표

정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의 3요소는 정리, 정돈, 청소다. 작은 의미에서의 정리는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돈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주소지를 정해주는 것이고, 청소는 더러워진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3요소를 물건에 적용해 보자.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다. 물건을 정돈한다는 것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찾아야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는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리해야 할 것

우리가 정리해야 할 대상을 크게 분류하자면, 일과 물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을 살펴보면, 주부에게는 가사, 학생에게는 공부, 직장인에게는 업무 등 누구에게나 자신의 역할에 맞는 다양한 일이 있다.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인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정리가 필수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일을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멈춘 시간 속에서 혼자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천천히 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다. 일과 휴식,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 하루 동안 할 일은 많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해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만 정리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와 팩스 같은 공용 물품이나 스마트폰, 옷, 가방, 지갑 등의 개인 물건도 업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목장 내에서도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물건, 축사관리 및 유지를 위한 시설 등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므로 소홀히 할 순 없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과 관련된 물건을 잘 관리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사용하거나 중요한 물건은 찾고,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하고,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목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간정리의 핵심 ‘흐름’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공간은 ‘순환’만 될 뿐이다. 구입하고, 수납한 뒤, 다시는 물건을 사지 못할 것처럼,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로 또 구입한다. 그런 공간은 마치 고인 물처럼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고 거의 나가지 않는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장소도 썩기 쉽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공간은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물과 같다. ‘순환’이 아닌,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공간 정리의 핵심이다. 흐름이란, 물건이 들어와서(input) 제대로 나가게(output) 하는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물건은 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납이 되어야 하며, 사용한 물건도 다음에 또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가 되어야 한다.

공간정리의 시작 ‘잡동사니 비우기’

정리정돈의 시작은 잡동사니를 비우는 것이다. 잡동사니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 그럴듯하게 반듯하지 못하고 자잘한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마디로, 사용해도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물건을 가리킨다.



이런 물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물건을 꺼내기조차 어렵게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버릴 물건들이 있는지 둘러보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처럼 타당한 기준을 세워서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정돈의 기본 ‘끼리끼리 수납법’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수납이다. 수납을 다시 말하면, ‘적재적소’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꼭 적합한 위치에 놓는 것이다. 수납을 잘 못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 목장에 가장 중요한 물건은 무엇인가? 이 물건들을 어디에 놓아야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수납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감이 안온다면 ‘끼리끼리’라는 말을 기억하라. 수납의 기본은 그룹핑이다. 비슷한 용도의 물건들끼리 모아두면 정리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다. 선반이나 바구니처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청소’는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청소다. 가령 위생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는 하는데 정리정돈은 잘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쓰는 물건이 많을수록 먼지가 쌓이기 쉽고, 청소를 할 때마다 물건이 걸리적거린다면 그만큼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

만약 청소하기가 매우 쉽고, 간편하다면 대청소라는 말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날마다 조금씩 청소를 하면 대청소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미루었다가 며칠에 한 번씩 하려고 하면 먼지와 때라 눌러 붙어서 청소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러나 보일 때마다, 지나갈 때 마다,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청소를 할 수 있다면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랜드라는 기업은 청소 경영을 중요시한다. 청소란 “단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연관된 소중한 것들을 구석구석 스스로 손을 대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즉, 청소란 물건과 공간을 처음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을 잘 청소해 최고의 상태로 유지한다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좋은 점

정리는 공간만 깔끔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다. 정리는 나비효과처럼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요즘처럼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정리가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물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가치에 대해 판단하게 하므로 필요에 의해 물건을 사고, 도중에 버릴만한 물건을 아예 사지 않게 된다. 또 중요한 물건은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손질하게 되므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 즉, 정리정돈을 잘 할수록 새나가는 돈이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최고의 공장 비용 절감 컨설턴트 하네다 오사무는 자신의 임대 사업을 했던 경험을 들려준다. 세입자들을 관찰해보니 월세를 연체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방이 매우 지저분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이나 물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실 그동안의 컨설팅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이나 인생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평생 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사업장의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잡동사니처럼 쌓아 놓고 시작하겠는가. 평생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첫날부터 집안을 난장판인 상태로 지내겠는가. 애정을 쏟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걸 잘 정리할 수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명언, “천재는 혼란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정리란 자신의 삶과 공간의 혼란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삶의 혼란 속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제대로 정리해 보자. 정리는 현재의 변화를 미래의 변화로 이끄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다면, 아무리 변화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실행할 때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물건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 물건과 관계된 일과 삶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정리정돈의 시작으로 목장경영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바란다. ☺